

다음주 시설공사 495억 발주

2월 둘째 주 도내에 495억원 규모의 시설공사가 발주된다.

조달청에 따르면 다음 주 도내 발주공사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 '국도 31호선 평창 방림~장평1 도로건설공사'(285억3,300만원)와 '국도 31호선 평창 방림~장평2 도로건설공사'(209억1,900만원) 등 총 2건이다.

이 도로공사는 다음 주 조달청 발주사업 중 규모가 가장 커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한편 올해 조달청을 통해 발주된 시설공사는 14건 708억원으로 집계됐다. 하위윤기자 faw4939@